박원자의 母情佛心 ⑯ 잇큐 선사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일본의 고승 잇큐 선사의 어머니는 고려에서 건너간 궁녀로 추정된다. 그녀는 아들 잇큐에서 따끔한 경책과 속히 출가해 불성을 깨닫길 바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남겼다. 훗날 이 편지를 읽은 조계종 前 종정 혜암 스님은 출가 발심을 하게 된다.

"속히 출가해 佛性을 깨닫아라"

생전에 '공부하다 죽어라' 는 명언을 남긴 조계종 前종정 혜암 스님(1920~2001)이 젊은 시절 일본에 계실 때다. 일제의 지배하에 있던 시절,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로 고뇌하면서 동서양의 책을 섭렵하고 있던 청년의 눈에 다음과 같은 편지글 한 장이 들어왔다.



그림 · 박구원

잇큐에게

나는 이제 사바세계 인연이 다하여 무위(無爲)의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나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너는 그 밝은 지혜의 눈으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항상 너와 함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진정 대장부라면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이 모두 너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책을 내려놓고 나가 사람들을 위해 일해라. 석가세존께서 사십여 년 설법을 하고서 단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약 네가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안다면 무익한 망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너의 어미가 9월 1일에.

이 편지는 일본의 유명한 선승 잇큐(一休, 1394~1481)의 어머니가 출가한 아들에게 쓴 편지로 일본 고승전집에 실려 있다. 그녀는 저 내용으로도 흡족하지 않았는지 추신으로 몇 줄의 글을 더 남겼다.

죄 많은 어미도 도를 닦지 못한 주제에 어려운 부탁을 너에게 하니 미안할 뿐이다. 석가세존의 가르침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런데 네가 방편에만 의지한다면 무지한 벌레에 지나지 않으리라. 설사 팔만대장경에 담긴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을 다 암송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너의 참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이 어미의 편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혜암 스님은 이 편지를 읽고 도를 닦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며칠 동안 밥을 굶었고, 급기야 출가를 결심했다고 한다.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내 맘속의 경전(한 물건, 본성)을 보지 못하면 내 편지의 뜻을 알 수 없을 것이라 했던 잇큐 선사 어머니의 글이 이국에 와서 생사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고뇌하던 청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혜암 스님은 훗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팔만대장경을 통째로 외운다 할지라도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산다면 팔만대장경은 똥닦개나 고름 묻은 종이에 불과하다' 고 설파했다. 그리고 마음을 깨치는 공부를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수지맞는 일이라고 설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따라 '이뭣고' 화두를 들으며 수지맞는 일을 선택했고,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 마음공부를 한 고승의 어머니 편지로 인해 일파만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잇큐 선사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일본 임제종의 고승이다. 그가 태어날 즈음 일본은 약 60년간 남북으로 분열된 남북조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의 아버지 고코마쓰(後小松)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2년 뒤 잇큐가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곳은 궁이 아니었다고 한다. 남조 출신의 어머니가 모함을 받아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훗날 분열을 염려한 황제의 가문에 의해 사찰에 보내져 5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고려에서 건너간 궁녀가 그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고려 말에 왜구의 침탈을 중재하기 위해 고려 왕실에서 일본으로 보낸 궁녀라는 것이다. 이 궁녀는 잇큐를 임신하고는 반대파들에게 납치되어 외진 마을로 유배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모자를 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아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절로 보냈다고 한다.

어느 것이 정설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잇큐의 삶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고려의 궁녀였다는 설에 무게가 더 실린다. 잇큐가 조선에서 건너온 화가 이수문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도를 전해 받았다고 하며, 고려의 다도에 선적 요소를 가미하여 제자에게 전수했고, 그 제자가 일본 다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센로리큐의 스승이 되었다고 한다. 센로리큐가 지은 건물이 교토의 대덕사 금모각인데, 그곳에 고려 16나한상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

절에 살면서 자연스레 출가한 잇큐는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으나 공부에 진전이 없고 망상에 빠져 지내는 자신을 발견한 어느 날 자책감에 젖어 호수에 몸을 던졌다. 한 거사에 의해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자괴감은 깊어갔고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인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 잇큐의 어머니 남긴 유언 편지
> "방편에 의지하면 無知"를 경책
> 출가 대장부 바라는 모정 담겨
> 혜암 스님의 출가 발심 계기돼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천천히, 진득하게 수행하세요."

어려운 여건에서 출가수행자가 된 아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온통 가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의 당부가 담긴 편지를 읽고 잇큐는 다시 발심하고 수행에 전념했다. 그리고 몇 년 뒤 앞에서 언급한, 혜암 스님이 보고 발심했던 내용이 담신 유서가 잇큐에게 전달되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의 저 간절한 편지를 읽고 발심을 해 공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잇큐 어머니의 편지를 살펴보면 깊이 마음공부에 통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나 조사들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오로지 자성을 찾는 일에 열중하여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당부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님을 보여준다. 황제의 아이를 낳고 궁에서 쫓겨 났으니 주변의 모해와 위험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간다. 그 온갖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내놓고라도 자식을 지키려는 것이 고금을 막론한 모정이다. 자식을 절에 보내놓고 자신도 마음공부를 했으리라. 출가 수행해서 부처가 되고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황제가 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임을 깨달았음이 틀림없다. 온갖 위험 속에서 아마도 수행자인 자식보다 더 치열하게 마음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았을 것이다. 자성을 깨달아 대자유인이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조사조차도 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잇큐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더 발심해서 정진했으리라. 해서 25세 무렵에 '동산 30방' 이라는 화두를 타파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몇 년 뒤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휴(一休)' 라는 그의 이름대로 마음을 푹 쉴 수 있었다고 한다.

잇큐는 일본의 반골기질의 선사로 통한다. 당시 타락한 불교계를 풍자하고 주지 소임을 잠깐 살고는 오랜 세월 만행생활을 했다. 그는 당시 혀끝으로 화두를 말하며 진리를 속이며 권력가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타락한 불교계를 보며 비판하는 시를 짓는 등 불교계의 쇄신과 다도(茶道)를 통한 선종의 대중화에 힘을 기울였다.

잇큐는 우리나라 신라의 고승 원효 스님과 비견될 정도로 대중들과 함께 어울렸던 스님이다. 긴 경책을 들고 수행자들을 깨우치고 다녔고, 주장자 끝에 해골을 매달고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무상을 깨도록 했다. 노년에는 시각장애 여인과 살면서 사랑에 대한 정서를 시로 나타냈다. 그러함 때문인지 잇큐는 일본의 역사인물화에 자주 등장했다.

잇큐의 수많은 일화 가운데 하나다. 하루는 산길에서 떠돌이 스님이 그에게 시비를 걸며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다. 잇큐가 '여기 내 가슴 속에 있다' 고 하자 떠돌이 스님이 잇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며 정말 여기에 있는지 가슴을 열어봐야겠다고 했다. 그때 잇큐에게서 시 한 수가 흘러나왔다.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그 속엔 벚꽃이 없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꽃이 피는가

그는 시에도 능했고,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

우리는 모두
벌거숭이로 왔거늘
무엇이 부족

다음 그의 짧은 시 한 수는 마치 마음공부를 한 그의 어머니에게서 듣는 듯하다.

무상한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로 돌아오는 길에 쉬고 있으니/ 비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두어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듯, 그도 제자들에게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열어보라며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작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